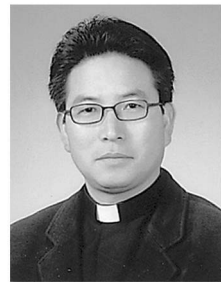


주일의 말씀

아버지의 품으로

김두찬 요한 신부
김천황금성당 주임



이야기 한 토막 (저는 그 부끄러움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십여 년 전 김천 소년 교도소를 담당 하고 있을 때 수감자들을 위한 인격지도를 부탁 받아 단상으로 올라가는 중에 수단 자락을 밟아 그만 앞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웃음과 우~~ 하는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스러웠습니다. 단상 위에 올라가서 조금 전의 상황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오늘 단상으로 올라가는 중에 넘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부끄럽고 창피스러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으면서 부끄러움과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저는 그 부끄러움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날 용기와 희망을 가지십시오.”

현대의 바쁜 일상 중에서 우리들은 자칫 일의 노예가 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와 기도가 소홀해지고 세속적으로만 살게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악의 유혹은 더 심해지고, 자신의 영혼은 물론이고 함께 하는 이웃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상처 입은 영혼에게 주는 희망의 말씀이 바로 “되찾은 아들의 비유(루카 15,11-32)” 인 오늘의 복음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삶은 축복이며 은총이라고 알려 줍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온갖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그런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주린 배를 잡고 과거를 되돌아보며 현재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뉘우칩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루카 15,17-20)]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는 작은 아들의 발길은 축복입니다. 아버지는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루카 15,20) 아버지의 집으로 발길을 돌린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뜨거운 포옹과 입맞춤,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습니다. 이것이 죄 많은 우리들의 회개를 언제나 기다리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큰 사랑입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은 아들을 품어준 아버지의 그 가슴 안으로 파고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품은 참으로 따뜻합니다. 오직 하느님 아버지의 품 안에 머물 때에만 온갖 위로와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루카 15,32

여호 5,9-10-12 2코린 5,17-21 루카 15,1-3,11-32.



지난 주보에서는 ‘십자가의 길’ 기도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난 주보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통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전대사를 얻으려면 대사를 읽는 데 필요한 일반적 조건(고해성사와 영성체, 교황의 지향을 위한 기도)을 이행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 기도에는 따르는 몇 가지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그 조건은 **첫째**, 14처가 적법하게 세워진 곳이어야 합니다. 주교님께서 축성식을 한 성당의 14처는 적법하게 세워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14처가 있어야 합니다. 14처는 성화나 조각으로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십자가만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셋째**, 14처 전례를 중단하지 않고 순서대로 바쳐야 합니다. **넷째**,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칠 때는 각 처로 이동하면서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한꺼번에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칠 경우에는 주송자만 이동하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바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14처가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병자들, 감옥에 갇힌 수인들, 군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분들은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특별히 축복된 십자가의 사

용을 허락하고 있고요. 그것도 어렵다면 적어도 30분 이상 예수님 수난과 죽음에 관해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대부분 14처로 되어 있지만 최근에 들어 예수님의 부활을 포함시킨 15처로 기도를 바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왜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는 것일까요?

사형선고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의 거리는 비록 거리상으로 짧은 여정이지만 예수님의 전 생애를 집약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죄한 분이 대역 죄인으로 낙인찍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삶. 그러나 그 삶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통해 묵상하고 또한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곧 하느님 말씀을 택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삶(순종)과 사랑을 택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삶(희생)을 통해 부활의 생명이 시작된다는 신앙의 역설을 기쁘게 사는 사순절이 되도록 합시다.

잘못을 뉘우친다면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미사

사순 제4주일

입당성가

490 십자가에 가까이

화답송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복음 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
미받으소서.

봉헌성가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송

아들아, 네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되찾
았으니 기뻐하여라.

파견성가

122 구원의 십자가

영성의향기

:: 아래로 내려가는 삶

그리스도인은 영적 여정에 있어서 영적 성숙을 가로 막는 잘못으로 기울어지려는 경향에 맞서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요르단 강물 속에 들어가 우리 자신의 죄 위에 설 때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루카 복음서에 나오는 아버지를 떠나가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 보려 했던 작은 아들이 빈털터리가 되어 자신의 처지를 자각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 가고픈 열망에 사로 잡혔던 바로 그 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지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거스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와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받은 자유를 이용하여 인정하지 않는 불충실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과 순결을 저버리게 하고 이웃에 대한 참사랑을 저버리게 하므로 사랑의 무능력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 권 가타리나 수녀 -

짧은글 깊은생각

참된 지식



한 청년이 의과 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는 도중에 교통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많은 응급환자들이 발생했고 사람들은 급히 의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응급 치료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치료를 하려고 하니 두려움도 생기고 손이 떨려서 잘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책으로 공부한 것만으로는 절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차를 운전하기 위해 운전전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사서 모두 읽은 후 운전과 자동차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동차가 질주하는 도로에서 운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적인 책을 많이 읽고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습득하는 것이 바로 훌륭한 신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지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에도 지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많은 체험이 있어야 확고하고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체험이 없는 지식만의 신앙으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거나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율려온 글입니다. -

교구설정 100주년 기념 기도영성분과 로고공모전

- 내용: “은총의 100주년 1,3은동”
- 하느님과 화해, 이웃과의 화해, 자신과의 화해
- 시상: 최우수상 1명 상금 100만원 (마감: 17일(수))
- ※대구대교구 홈페이지(www.dgca.or.kr) 참조

+ 영원한 안식을 주소시

3.20(토)는故 박도식(도미니코) 신부님 7주기입니다.

★ 모임 · 행사 ★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 일시: 3.15(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대회합실
- 네이바카페 ‘대구대교구전례꽃꽂이연구회’

성바오로 2020 이벤트 (256-4592)

- 성바오로 출판사 도서, 음반, 성물, 카드등 매일 20일 20% 할인행사를 합니다.(티출판사제외)
- 일시: 3.20(토) 성바오로 대구서원(성모당부근)

예비신학생 개학미사

- 일시: 3.21(일) 14:00, 남산동신학교 대성당

★ 성소모임 · 피정 ★

마리아 영성피정 (성체현시,미사안수)

- 일시: 3.17(수)13:00~17:00, 지도: 강요셉 신부
- 문의: 삼덕성당 422-6691

성서통독 피정(054-382-0260)

- 일시: 3.19(금)~20(토), 장소: 소보동지

영성 침묵 피정(054-382-0260)

- 1차: 3.20(토)~21(일), 장소: 소보동지
- 2차: 3.30(화)~31(수)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성소 모임

- 일시: 매일 넷째 주일 13:30
- 대상: 성소에 관심이 있는 30세 미만 미혼여성
- 문의: 011-803-8973/ 659-3404

※ 성소 모임 행사시 수녀원 홈페이지 참조

곶넬푸알 프란치스코회 성소모임

- 일시: 매일 둘째 주일 14:00, 월배수도원
- 문의: 010-5064-7467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성소모임

- 일시: 3.2(일) 매일 셋째 주일 14:00
- 장소: 주교좌 계산성당(빈첸시오회 회합실)
- 문의: 010-6625-0927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식별피정)

- 일시: 3.27(토) 17:00~28(일) 19:00
- 장소: 대구 투쟁 포교베네딕도 수녀원
- 대상: 35세 미만 미혼 여성
- 문의: 010-8519-3431/ 313-3431

마음을 더 가볍게 하는 2박3일 치유피정

- 일시: 2차 3.26(금) 13:00~28(일)
- 장소: 마리아피정센터(부산남구우양2동127-166)
- 강사: 최봉도 F.하비에르 신부
- 피정비: 11만원, 부산045-0375520 제티없으신
- 문의: 051-634-0228/ 011-9503-0228

예수기도 및 거룩한 독서 피정

- 일시: 예수 기도 3. 24(수)~28(일)
- 거룩한 독서 4. 13(화)~17(토)
- 장소: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도원(고성)
- 문의: 016-816-1986/ 010-8873-1348

가르멜 남자 수도회 성소모임

- 일시: 매일 셋째 주일 14:00
- 장소: 마산 진동 가르멜 수도원
- 문의: 이인섭 필립보네리 신부 010-3169-7416

그리스도의 교육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3.26(금) 20:00~28(일) 16:00
- 장소: 안동관구, 피정비: 2만원
- 대상: 수도 성소를 갈망하는 미혼여성
- 문의: 010-5517-8833

★ 모집 · 교육 ★

2010년 1학기신학교육원 신학강좌 수강생모집

- 과정: 신학일반, 성경, 특별(영성지도와 상담, 생명윤리, 성경안의 여성들, 교부학, 원문성경연구, 영어성경(로마서), 중재교육)
- 개강 및 문의: 660-5105~6

파스카 청년 성서모임 팀모집

- 단계: 창세기,탈출기, 마르코, 요한
- 문의: 255-1582(평일 14:00 이후)

가톨릭요셉발견강회 강좌 ‘발은 제2의 심장’

- 일시: 매주 토요일 14:00, 매주 월 10:30
- 문의: 476-7774(교재 및 도구포함10만원)
- 홈페이지: www.footfather.com

ABC기초 영어반 모집

- 접수: 3.16(화) 13:00
- 문의: 새빛학교(교대역) 476-3100

대구가톨릭대학교 TESOL

- 미 IVY리그 펜실베이니아 대학 제휴
- 외국협력대학 유학 시 학점인정
- 이수 후 공립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 응시가능
- 전화: 526-0121(http://tesol.cu.ac.kr)

3차 효소단식,침묵,복음서 통독피정

- 일시: 3.22(월)14:00~26(금) 13:00(1인33만원)
- 장소: 정학상교육회관 041-863-5690/ 010-9558-7112
- 주제: 몸살림, 마음살림을 위하여
- 지도: 김용태·김석태신부, 김연희수녀 외2명

대건인쇄출판사 직원모집

- 분야: Mac 디자인(경력자)
- 제출서류: 이력서, 포트폴리오
- 문의: 252-6737(itagun@hanmail.net)

★ 안내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 대상: 09년 미수검자 및 2010년 대상자
- 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650-4591
- *1차, 암검진(암검진은 꼭 예약해야 됨)
- 건강검진은 성인병, 암조기발견에 좋습니다.

3월 가나강좌(1인당2만원, 당일접수)

- 일시: 3.21(일) 09:30~18:30
- 장소: 가톨릭의료원 의대 마리아관
- 문의: 641-5678 / 010-8853-7458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미사	3월 15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한티성지 후원회 월례미사	3월 15일(월) 오전11시	한티순교성지
4대리구 경주지역성소후원회 월례미사	3월 15일(월) 오전11시	성동성당	김천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3월 16일(화) 오전10시	평화성당

대구큰사랑요양병원

- ▶신경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상주
- ▶한의사 진료 ▶중풍, 말기암, 재활치료
- 입원상담 ☎ 951-9119
- 경대교에서 대구공교방향 100m
- 병원장 김 지 현 이사

한 신 주 택

- 신축 및 주택수리
- 지붕칼라강판 판별공사
- 지붕 우레탄폼 방수
- 방충창고 보온단열
- 053) 555-5432
- 박일주(마태오) 011-529-7501

범어 램브란트 치과

- 원장 김 대 호 (마 지 아)
- 범어네거리 삼성증권 옆 남부외과 4층
- Tel. 754-2804
- www.ilovelamplant.com
- 월·수·금 오후 9시까지 야간진료

여러분의 건강을 안심시켜 드리겠습니다.

안 심 내 과

- <30년 전통의 (구)이상계 내과>
- 내과 전문의 5인 진료 765-3771
- 심장 · 순환기, 소화기 · 내시경 전문
- 공단검진, 5대암검진, 각종 종합검진
- 들안길네거리~황금성당 사이

성모노인복지센터

- 요양등급 받으신 대상자에게
- 전문케어 서비스 제공
- 요양등급판정 받으실 분 친절상담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 “내 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모시겠습니다.”
- ☎ 달서구: 053)564-1577
- 남구: 475-1877 / 수성구: 784-2888

대장 · 항문(치질, 변비) 전문클리닉

- 늘 시원한 학문외과
- 원장 의학박사 :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 치질 · 변비, 소아변비 · 변실금, 위 · 대장내시경
- 여성전용 입원실 · 지하 무료주차장 완비
- 959-7175(치질치료), www.hangmunso.com
- 신경대우이파트 북한오거리

보석 전문점 미석

- 특허청 등록업소 0252134
-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3번 출구
- 임종화 (바실리오)
- 423-6336, 011-809-3003

라식, 백내장수술전문

- 김기산안과**
- Dr. Kim Ki San
- 김기산 안과
- 의학박사/전문과 김 기 산 (안드레이)
-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 반월당 대구 학원 9층
- ☎ 257-8875 www.kisanlasik.co.kr